

제3회 포천시체육회장기 축구대회

21일부터 11일간 전일 야간경기로 치러져

포천시는 오는 21일부터 31일까지 11일간 전일 야간경기로 치러지는 제3회 포천시체육회장기 축구대회를 개최한다.

포천시체육회가 주최하고 포천시축구협회(회장 박상욱)가 주관하는 이번대회는 관내 축구 동호인 및 가족 2천 500여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대회는 오는 21일 오후 7시 포천종합운동장에서 개회식을 시작으로 예선은 리그전, 본선은 토너먼트로 치르게 된다.

또 대회 시상은 특별상부문 단체상으로 입장상과 페어플레이상, 경기부분 단체상으로 우승, 준우승, 공동3위가 가려지며, 경기부분 개인상으로 대회 MVP 1명, 득점상 1명, 심판상 1명에게 수여될 예정이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축구에 관심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대회기간동안 종합운동장을 찾아 관람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육성점수 6천점을 상한점수로

도체육대회 운영개선평가 공청회



경기도체육대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17일 오후 2시 경기도체육회관 내 10층 대회의실에서 '도체육대회 운영개선평가 공청회'가 개최돼 관계자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경하며, 심판문제와 시상제도, 식전 및 식후행사 등에 대한 다각적인 개선안도 제안됐다.

공청회 진행은 용인대 최홍삼 교수가 맡고, 토론자로 김진규 도체육회 상별 및 조정중재위원, 김정도 가맹경기단체 전무이사협의회 부회장, 박성복 고양시청 체육청소년과장, 김기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인터뷰 21

종목별체육외장

포천시배구연합

홍태식 회장

어머니 배구선수 발굴 어머니배구 육성



홍태식 회장
포천시배구연합

포천시배구협회·연합회(이하 포천시배구협회)는 1997년부터 홍태식 회장(58)이 맡아 현재까지 이끌고 있는 포천시체육회 가맹단체이다.

포천시배구협회를 8년간 이끌어오면서 배구의 보급과 활성화를 통한 저변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홍태식 회장으로 부터 배구협회의 현황 및 발전상을 들었다. 홍태식 회장은 포천시 가산면에서 (주)현대유리를 경영하고 있는 지역 사업가이기도 하다.

포천시배구협회는 홍태식 회장과 이원성 사무장을 위시해 5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부회장과 이사진 없이 최소한의 인원으로 협회 임원진이 구성돼 있다.

포천시배구협회가 활성화된 데는 2001년 진주에서 코치생활을 하던 이원성 사무장을 영입하면서부터이다.

홍 회장은 "초창기 배구협회를 맡았을 때에는 배구의 저변도 많지 않았고, 겨우 명맥만 유지해온 터라 배구 활성화 보다는 도민 체전 출전 등 가장 기본적인 기능만을 하고 있었다"며 "이원성 사무국장을 영입하면서 포천출신 선수 발굴과 지역에 배구 보급을 확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포천시배구협회는 관내 14개 읍·면·동에 동호회를 조직, 활성화를 위한 토대 마련을 이미 해놓은 상태다.

지역별 동호회 구성은 포천시배구협회의 가장 큰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홍 회장은 "지역을 세분화시킨 이유는 도민체전 위주의 선수 선발과 기용에서 탈피, 항상 선수를 보급할 수 있도록 선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라고 밝혔다.

이런 읍·면·동에 동호회조직에 앞서 선행 됐던 것이 포천교육청과의 협조 속에 진행됐던 어머니배구단 구성이다.

홍 회장은 관내 어머니들의 관심을 이끌어 내면서 자연스러운 배구동호인 양성을 위해서 이런 구성을 했다.

홍 회장은 "당시 어머니 배구단 구성은 어머니들의 소극적 자세와 배구에 대한 인식 부족 등 어려움으로 인해 포기하게 됐다"며 "다행히 준비과정 중 관내 남자배구 동호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 이들을 각 지역 배구회장으로 삼고 저변확대를 꾀했다"고 설명했다.

포천시배구협회는 지난달 포천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일본의 니이카타현에 어머니배구단을 이끌고 친선경기를 치렀다. 이번



일본 방문은 지난해 일본과의 배구교류를 위해 영북면 산정호수에서 개최됐던 어머니배구대회에 이어 2회째 친선경기를 위해서이다.

일본어머니배구단과의 교류와 협력에 이르기까지 홍 회장의 숨은 노력의 흔적은 많은 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홍 회장은 배구의 홍보와 저변확대를 위해 기획하던 관내 어머니배구단 구성을 잠시 접고, 개인적인 친분 및 관계를 맺고 있는 인맥을 총동원해 일

본과의 교류전을 성사시켰다.

홍 회장은 "일본과의 배구를 통한 교류 역시 저변확대와 홍보를 위한 한 방안으로 실시했으나 체육·문화적인 경험만 해왔을 뿐 실질적인 홍보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다각적인 검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 "포천교육청의 협조 속에 어머니 배구대회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본 자매도시와의 배구대회는 매년 개최할 예정으로 내년엔 포천에서 개최할 것으로 보인다. 포천시배구협회는 앞으로 어머니배구단 구성을 통한 어머니배구대회 개최 등 저변확대, 생활체육에 치중돼 오던 배구 지도를 포천교육청을 통해 초·중·고 엘리트배구인 육성으로의 방향전환 등 배구발전

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

한편 홍 회장은 진정한 생활체육으로 배구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엘리트출신 위주의 선수 구성보다는 생활 속에서 순수하게 배구를 배운 선수들이 많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포천시배구협회는 선수들이 평소엔 연습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이 시급하다. 홍 회장은 현실적으로 전용체육관 마련에 힘이 들기 때문에 현실적인 대안으로 관내 학교체육관을 빌려 쓰고 있는 실정이라서 지역사회의 열악한 체육환경을 고려할 때 학교들이 체육관 등의 문

호를 일반인들에게 개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40대 축구인 전성기 실력 과시"

포천시축구연합회회장기 40대 축구대회

포천시축구연합회는 지난 18일부터 오는 21일까지 포천종합고등학교 운동장과 삼성중학교 운동장에서 전일 야간경기로 제1회 국민생활체육 포천시축구연합회장기 40대 축구대회를 개최한다. 포천의 축구 부흥기 축구활성화와 저변확대를 위해 노력한 40대 축구인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대회는 포천시생활체육협의회가 주최하고 포천시축구연합회(회장 이상만)가 주관한다.

총 17개 팀이 참가하는 이번 대회는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포천시축구연합회는 지난 18일 오후 6시부터 포천중고에서 제1회 국민생활체육 포천시축구연합회장기 40대 축구대회 개최식을 마련했다.

지난 18일 오후 6시 포천중고 운동장에서 우천 속에서 개회식을 갖고 4일간의 일정을 시작했다.

이번대회에는 워너즈, 소울, 일동, 선후, 대경, 우정, 이가FC, 선단드래곤스, 한내, 신북, 일동, 대방, 포천, 영중, 가산, 운당, 영남 축구회가 참가했다.

이상만 회장은 "젊은 선수들에 비해 이제는 체력과 기량이 떨어진 40대 구동호인들이 실자리가 점점 없어지는 것이 안타까워 이번 대회를 준비했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40대 축구동호인들이 생활의 활력을 찾고 포천축구발전에 초석으로서 자리를 지킬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엄혜원·이주희 전국배드민턴대회 2관왕



엄혜원(포천여중 2년) 이주희(포천여중 2년)

포천여중 엄혜원(2년)과 이주희(2년) 선수가 제38회 전국학교대항배드민턴 선수권대회 여중부에서 나란히 2관왕에 올랐다.

엄혜원, 이주희 조는 지난달 30일 전남 순천 중앙체육관에서 개최된 여중부 복식 결승전에서 조지력을 앞세워 성지여중 이세랑, 박옥영 조를 세트스코어 2대1로 물리치고 정상에 올랐다. 따라서 엄혜원과 이주희 선수는 대회 단체전 우승에 이어 나란히 2개의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첫 단식에서 엄혜원, 이주희조는 정교한 드롭샷과 스매시로 세트를 따내며 기선을 잡았으나 2세트에서 발실과 막판 고비를 넘기지 못해 동점을 허용했다. 그러나 엄혜원, 이주희 조는 마지막 세트에서 넷 플레이가 살아나며 우승했다.

한편 엄혜원 선수는 지난 19일 수원 삼성전기체육관에서 개최된 제14회 삼성전기배 주니어 배드민턴대회 단식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에서 엄혜원 선수는 팀동료인 이주희 선수를 세트스코어 2대1로 꺾고 1위를 차지했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광복60주년 기념 8·15축구대회

동두천시(시장 최용수)는 광복60주년을 맞아 8만 시민과 함께 경축하기 위해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종합운동장 보조구장 및 체육광장에서 8·15 기념 축구경기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내빈 및 시민, 선수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더불어 광복 60주년을 경축하고 남북통일을 기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대회의 우승은 신홍조기축구가 준우승은 소요FC, 3위는 동보조기회, 미2사단축구가 각각 차지했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이태리와인의 그윽함과 파스타 향기 솔솔나는 ...

삐노콜레

삐노콜레는 이태리어로 소나무 언덕을 뜻합니다.

총1300평의대지에 7년 동안 정성스럽게 조성한 아름다운 소나무와 철쭉,아생와로 들러깁니다. 삐노콜레는 그풍경만으로도 귀이에게맛과 멋을 선사합니다.

■ 삐노콜레는 약속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이태리 요리를 맛보실 수 있게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웰빙시대에 발맞추어 가장 신선한 재료와 식자재를 사용하겠습니다.

■ 삐노콜레의 추천요리

1. 참나무 화덕에서 구어낸 칼조네 피자(칼조네란 : 피자 반죽 사이에 고기· 치즈· 야채 등을 넣고 만두처럼 만들어 오븐에 구운 이태리아 전통요리) - 겉은 바삭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운 토핑이 가득 들어있는 피자입니다.
2. 오랫동안 우려낸 해산물 육수로 맛을 낸 스파게티 디마레 - 베니치아식 스파게티로 해산물 원래의 맛과 토마토소스의 진한 맛이 잘 어우러진 스파게티입니다.
3. 삐노콜레 마블스테이크 - 일반 접시가 아닌 이태리 천연대리석 위에 올려져 식사를 하실 수 있는 스테이크로 식사가 끝날 때까지 온도가 유지되어 고기의 참맛을 느낄 수 있는 스테이크요리입니다.
4. 삐노콜레 리조또 - 전통이태리 방식이 아닌 우리나라 사람들의 입맛에 맞추어 만든 리조또 (리조또 종류 : 해산물리조또, 만조리조또, 양송이리조또)로 파스타나 피자를 안 좋아하시는 분에게 적극 추천합니다.



www.pinocolle.com

지금 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하시면 무료쿠폰과 대박이벤트의 기회가 주어집니다.